금주의 법구-〈잡아함경〉
남을 해칠 마음 없으면
분노가 얽매지 못하니
원한을 오래 품지 말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1년 단기 4350년(음력 3월 9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142호 2017년 4월 5일 수요일

내년부터 '은퇴자출가' 門 열린다

조계종 중앙종회, 진통 끝 은퇴자출가법 통과

51~65세 대상, 권리제한 有

내년도부터 연령 51~65세 은퇴자들이 조계종 승려로 출가할 수 있게 됐다. 단 승려법이 아닌 특별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의 권리제한이 따른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원행)는 3월 27~31일 열린 제208회 임시회서 '은퇴자출가에관한특별법'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출석의원 52명 중 39명이 찬성했다. 반대 5명, 기권 8명.

이날 회의서 종회의원들은 은퇴자출가법을 놓고 장시간 토론했다. 그만큼 의원들 간 의견이 엇갈렸다. 가장 첨예하게 부딪힌 내용은 권리제한이었다. 출가제도특위가 성안한 법안에 따르면 은퇴출가자는 승려 기본교육이 면제되기 때문에 각종 권리가 제한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한을 비롯해 법계는 견덕 · 계덕까지만 가능하며,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종무원 및 말사주지 임명이 불가하다. 이를 두고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덕산 스님은 "비구계를 받아 종단구성원이 됐음에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출가제도개선특위 위원장 수암 스님은 "특별법에 의한 구제법안 성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평등권 위배사항은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또 '사회 각 분야서 15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필요한 부분이 모호하다는 지적에는 "종령에 세부사항을 정해 다룰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평등을 위해 현행 승려법의 출가연령을 65세까지 확대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의견도 나왔으나 유교문화권인 우리나라서 좌차와 습의생활 등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2시간 동안 합의점을 찾지 못한 중앙종회는 결국 오후 회의서 은퇴자출가법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은퇴자출가법이 적용된다. 하지만 은퇴출가자를 위한 구체적인 교육이 마련되지 않은 만큼 총무원과 교육원 등 집행부 관련 부서의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은퇴출가자는 수행사찰서 최소 1년간 행자생활을 한 뒤 계단위원회 갈마를 거쳐 단일계단서 사미 · 사미니계를 수계한다. 비구 · 비구니계는 사미 · 사미니로서 5년 이상 수행해야 한다.

주요 안건 또다시 미뤄져

한편 이번 중앙종회 최대 관심사였던 '멸빈자 사면'과 '총무원장 선출제도' 관련 종헌개정안은 모두 이월됐다. 이로써 부처님오신날에 맞춘 멸빈자 사면은 불가능해졌으며, 총무원장 선출제도 변경 역시 오는 10월 선거서는 적용키 어려워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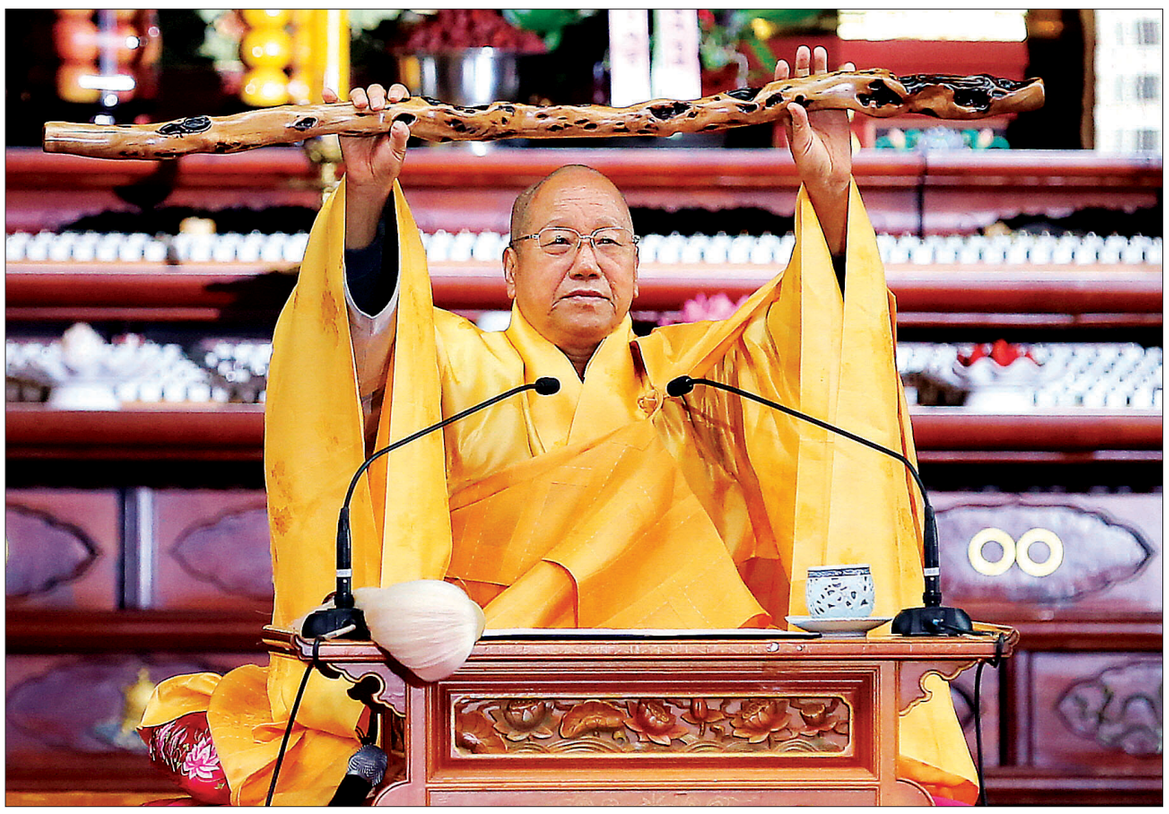
멸빈자사면 개정안은 종헌특위 내에서도 의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데다가 부칙 삽입을 통해 종헌을 제한하는 것이 종헌위배 사항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종정 진제 스님의 교시에 따른 종헌 개정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 나올 만큼 멸빈자 사면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셌다.

추첨제와 직선제로 나뉜 총무원장 선출제도 개정안은 기존 특위들을 해체하고, 새로운 특위를 구성해 통합적인 논의를 거쳐 단일안을 제출키로 했다. 두 안건이 서로 상반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새 특위인 '총무원장 선출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엔 초격 스님이 선출됐으며, 위원 구성은 의장단에 위임키로 했다.

승려 기본교육 면제 따라
선거권 · 피선거권 등 제한
15년 사회 경력 증명해야
사면 · 선거제도 등 이월돼

하지만 추첨제를 다룬 총무원장선출제도혁신특위는 지난 종회 이후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못했고, 직선제특위 또한 성원되지 않는 등 동력이 떨어져 새 특위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제16대 중앙종회 임기가 내년에 만료돼 35대 집행부가 꾸려진 뒤에도 총무원장 선출제도 개정은 낙관할 수 없게 됐다.

오는 4월 26일부로 임기가 만료되는 원로의원 후임으로는 철웅(마곡사) · 설정(수덕사) · 법타(은해사) · 성타(불국사) · 지하(쌍계사) · 월주(금산사) · 보선(대흥사) 스님이 만장일치 추천됐다. 또한 성타 스님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호계원장에는 前송광사 주지 무상 스님이 만장일치 선출됐다. **윤호섭 기자**



조계종 제14대 종정으로 추대된 진제 스님이 총무원장 자승 스님으로부터 법장을 봉정받은 뒤 대중에게 두 손으로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제공=조계종 홍보국

"성숙된 시민정신으로 새 시대를"

조계종, 14대 종정 진제 스님 추대법회 봉행

시대 부합하는 종교 강조
사부대중 1만여 명 운집

조계종단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맡아온 진제 스님이 제13대에 이어 제14대 종정으로 추대됐다. 스님은 향후 5년 동안 종단의 신성이자 종통을 상징하는 선지식으로서 대중을 위한 깨달음을 전하게 된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3월 27일 오후 서울 조계사서 '제14대 종정 진제 법원 대종사 추대법회'를 거행했다. 법회에는 종단 집행부스님들을 비롯해 각 종단 총무원장, 교구본사주지, 중앙종회의원, 정관계 인사, 불자 등 1만여 명이 운집해 진제 스님의 종정 추대를 기념했다.

진제 스님은 현재의 국가적 상황과 관련해 "작금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발전과정에서 갈등과 반목, 분열과 대립 속에 있다. 상호존중과 다양성을 포용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자유와 평화는 반목과 대립으로는 결코 이뤄질 수 없다"면서 "항상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와 자기집단보다는 국리민복을 먼저 생각하는 성숙된 민주시민정신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스님은 이어 대중에게 "불교는 시대의 아픔인 갈등과 대립을 화쟁정신으로 치유해 분열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국민통합을 이루고, 또한 어려운 이웃과 고통 받는 중생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로서 동체대비의 대승보살도를 실천함으로써 이 시대에 부합하는 종교의 역할과 책무를 다하자"고 당부했다.

스님은 또 "석가모니 부처님이 꽃을 들어 보이시고, 자리를 분해 같이 앉으시고, 돌아가신지 7일 후에 두 발을 내보이신 이 도리를 바로 알아야 부처님의 깨달음을 바로 봄이로다. 산마루에 구름이 걷히니 산봉우리가 드러나고 밝은 달은 물결 위에 떠 있음이로다"고 법어를 했다.

법회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축하메시지가 전해져 눈길을 끌었다. 황 권한대행은 송수근 문체부 제1차관이 대독한 메시지를 통해 "한국불교의 정통법맥을 계승한 종정예하께서는 우리 불교에 정신적인 지도자이시다. 갈등과 대립의 시대를 사는 인류에게 대화합을 제시하셨다"며 "서로 차이를 넘어 널리 화합을 이루라는 부처님의 원융회의 가르침이 필요한 때다. 부처님 지혜와 자비가 우리 모두의 마음을 밝혀 온 국민이 화합하는 가운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진제 스님은 1934년 경남 남해서 출생해 1953년 석우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1958년 혜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1967년 향곡선사로부터 법을 인가 받았으며, 경허-혜월-운봉-향곡으로 내려오는 정통법맥을 이어 불조의 제79대 법손이 됐다. 선학원 이사장과 중앙선원 조실, 동화사 금당선원 조실, 기본선원 조실, 봉암사 태고선원 조실 등을 역임했다. 현재 팔공총림 동화사 방장, 부산 해운정사 조실을 맡고 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세월호 인양, 이제 시작 미수습자 모두 찾아야"

조계종 사회노동위, 성명 발표
참사 해역서 4대 종교 기도회도

세월호 인양 작업이 진행 중인 참사 해역서 불교 · 가톨릭 · 개신교 · 원불교 4대 종교가 미수습자의 온전한 수습을 기원하는 기도회를 개최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천주교 진도본당, 개신교 호남신학대, 원불교 광주전남교구는 3월 28일 세월호가 인양된 반잠수정 인근 200m 앞 해역서 미수습자의 온전한 수습을 기원하는 종교행사를 개최했다. 4대 종교는 각 종교의 방식으로 기도를 봉행했다.

불교계에선 조계종 사회노동위원장 혜용 스님과 사회국장 지상 스님, 양한웅 사회노동위 집행위원장이 함께했다. 혜용 스님과 지상 스님은 반야심경 봉독 후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다가가 손을 맞잡으며 위로를 건넸다.

앞서 사회노동위는 3월 26일 성명을 통해 "세월호 인양은 이제 1차 인양이 완료된 것으로 시작에 불과하다. 미수습자 아홉 분을 가족 품으로 온전히 돌려보내는 것이 진정한 인양완료"라면서 "정부는 미수습자 9명을 수습하는데 있어 2016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당일처럼 우왕좌왕하거나 무책임성을 보여줘선 안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29일 국회서 위원이 확정되는 선체조사위원회에 대해선 세월호가 목포 신항에 도달하기 전 미수습자 수습 계획을 명확히 내놓아야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사회노동위는 "사고원인을 찾아내기 위한 선체조사도 미수습자 수습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면서 병행해 조사하는 방법을 정부와 선체조사위는 강구해야한다"며 "정부는 세월호 미수습자 아홉 분을 가족 품으로 온전하게 보내는 것이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천분의 일이라도 갚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사회노동위는 9명의 미수습자가 온전히 수습되는 날까지 목포 신항만의 세월호 옆에서 기도를 봉행할 것을 약속했다. 사회노동위는 세월호가 인양 후 거치될 목포 신항에 임시법당을 설치, 미수습자의 온전한 수습을 발원하는 기도법회를 봉행한다. **박아름 기자**

특별기획 A7면
세월호 참사와 함께한
조계종 1085일의 기록

선운사
삼사순례 안내

삼사 성지순례는 영험깊은 기도도량을 순례하며 탐진치 삼독으로부터 벗어나 지극한 심신으로 업장소멸을 다짐하는 불교의 오래된 풍속입니다.

강학과 수선도량 선운사는 미륵지장기도성지 **도솔암**과 참회수행도량 **참당암**이 자리잡고 있어 성지순례의 최적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사찰경내에 **대형저수지(도솔제)**가 자리잡고 있어 방생법회와 삼사 성지순례의 명소입니다.

유서깊은 기도도량의 순례를 통해 신심을 다져보시기 바랍니다.



1코스 : 선운사 ⇨ (5분) ⇨ 도솔제(방생)(5분) ⇨ 참당암(5분) ⇨ 도솔암

2코스 : 도솔암 ⇨ (5분) ⇨ 도솔제(방생)(5분) ⇨ 문수사(고창) ⇨ 문수사(부안)

오시는 길

- 서울출발 : 경부고속도로 → 천안 논산 고속도로 → 서해안 고속도로 → 선운산 I.C → 선운사(약 3시간 소요)
- 부산출발 : 남해고속도로 → 담양 고창 고속도로 → 서해안 고속도로 → 선운산 I.C → 선운사(약 3시간 소요)
- 대구출발 : 88올림픽고속도로 → 담양 고창 고속도로 → 서해안 고속도로 → 선운산 I.C → 선운사(약 3시간 소요)

※ 사전 연락주시면 사찰안내 및 방생 편의를 제공해 드립니다.
※ 대형버스 진입가능.


선운사 강학과 수선 도량


도솔암 도솔천 내원궁 해동 제일 미륵 · 지장보살 성지


청량산 문수사(문수보살 기도성지)


능가산 내소사(서해제일 관음기도도량)


참당암 참회수행도량


방생 최적지 도솔제 (경내 차량 5분거리에 위치)

■ 문의 : 선운사 종무소 063)561-1422 / 도솔암 063)564-2861 / 내소사 063)583-7281 / 문수사 063)562-0502 전북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250 선운사 http://www.seonunsa.org/